길따라 꽃따라 봄을 거닐다

'왕인문화축제'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구림마을 등 발길 닿는 곳곳이 포토존
백룡산 자락에 있는 덕진차밭 SNS 명소
이안 미술관·하정웅 미술관도 필수코스

▲ 구림전통마을은 야트막한 토담으로 이어진 골목길을 거니는 즐거움이 매력이다. 봄을 맞아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매화 등 봄꽃도 정취를 더해준다. 영암 | 김재범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테마 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 가오!'의 예전 모습.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진행하는 올해는 축제 테마를 왕인이 현대로 귀환하여 영암의 미래를 선언한다는 주제로 업그레이드했다. 사진제공 | 영암군청

마스크 없이 맞는 봄, '엔데믹 봄'에 꽃소식 못지않게 반가운 '손님'들이 있다. 거의 4년 가까이 접하지 못했던 '온전한' 형태의 봄축제다. 한동안 아예 열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던 여러 봄축제들이 올해는 모처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월출산의 고장, 영암에도 봄을 맞아 지역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가 꽃소식과 함께 돌아왔다.

●토담길 걷는 즐거움, 호남 3대 명촌

왕인박사는 영암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서기 405년 일본 천황의 초청으로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들고 상대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태자의 스승으로 백제문화를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구림마을 등에서 열린다. 4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축제다. 올해는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축제 대표 행사인 퍼레이드는 올해 왕인이 현대로 와서 영암의 미래를 선언한다는 'K-레전드, 왕인의 귀환'이라는 테마로 업그레이드했다.

그 외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에 각종 포토존을 조성하고, 구림마을 달빛야행,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산보', 기(氣)찬영암 관광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의 주요 장소인 구림전통마을은 무려 2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다. 전남 나주 금안동, 전북 정읍 무성리와 함께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린다. 월출산 서북쪽에 위치한 동구림, 서구림, 도갑, 동계, 서호정 등 12개 마을을 통칭해 구림마을이라 부른다.

동네 어디서나 월출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구림마을은 오붓한 크기의 구림천 좌우로 꽤 넓은 지역에 자리했다. 대표적인 명소는 400년 넘는 역사의 창녕조씨 종택, 과거 급제 인재를 대거 배출한 명문 죽정서원, 구림대동계의 상징 회사정, 신라 고승 도선국사의 탄생설화가 담긴 국사암 등이다.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포구 상대포도 마을 초입에 이제는 작은 저수지 형태로 있다. 왠지 정겨운 느낌을 주는 토담들이 이어지는 오밀조밀한 동네 골목길은 봄날 여유로운 뚜벅이 여행을 하기 딱 좋다. 골목 어귀 곳곳에 매화나 벚꽃 등 봄꽃들도 자리해 거니는 재미를 더해준다.

마을 동쪽 문필봉 기슭에는 축제의 또 다른 주요 장소인 왕인박사유적지가 있다. 어지간한 공원보다 훨씬 넓은 부지에 거대한 기념비부터 사당,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다. 고대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마한문화공원도 가볼 만하다. 영암군 시종면에 있는데 고대 마한문화를 소개하는 테마 공원이다.

●푸른 다원 너머 그림같은 산세

남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푸른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차밭의 풍광이다. 영암에서는 덕진차밭(영암다원)이 유명하다. 백룡산 자락에 있는 차밭의 정식 이름은 '한국제다 영암 제2다원'. 장성 1다원, 영암 2다원, 해남 3다원 중 하나다. 덕진면에 있어 덕진차밭이라고도 부른다. 양지바른 비탈진 언덕에 자리한 차밭 위로 올라가면 소박한 정자가 있다. 거기 서면 눈앞에 월출산과 활짝 펼쳐진 차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영암 봄나들이 인증샷을 찍기 좋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라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남 8대 정자 중 하나라는 영암읍 부춘정도 팽나무가 둘러싼 수려한 경치와 단아한 모습의 정자가 어우러져 꽤 예쁜 사진이 나온다.

미술 감상을 좋아한다면 이안 미술관과 군립하정웅미술관도 여행 일정에 넣어두자. 이안 미술관은 실내와 실외 전시실, 유럽식 정자,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3층에 미술인들이 영암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도록 숙박시설을 갖춘 아틀리에도 있다.

구림마을에 있는 군립하정웅미술관은 지방 미술관으론 드물게 호안 미로, 달리, 루오, 샤갈, 벤 샨 등 이름을 접했던 해외 거장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이곳, 활성산 풍력발전단지

금정면의 498m 활성산은 한때 대관령 삼양목장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서광목장이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모기업의 부도로 운영이 중단됐고 대명GEC가 이곳을 인수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 곳이 많지만 일부 출입이 허용된 공간에서 거대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자락에 펼쳐진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영암 | oldfield@donga.com

3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왼쪽)과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경력보유여성 관광일자리 취업 지원" 관광공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경력보유여성의 관광일자리 취업 및 경력 지속 지원을 위해 3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관광공사는 여행사, 벤처기업 등 서울의 관광기업들이 희망하는 관광 ICT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인턴십을 통해 수료생 중 최대 20여 명에게 임금지원(생활임금 3개월) 및 계속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ICT 교육은 4월 17일~5월 9일, 4월 24일~5월 16일 등 총 2회 진행하며 과정별로 30~40명을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까지다.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지난해 출산율 0.78명,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을 고려한다면 경력보유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관광산업 일자리 진입이 국가관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무협약처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인재양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승우여행사 '트리플 악산 챌린지' 도전자 모집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3대 악산에 오르는 '트리플 악산 챌린지' 여행을 기획해 5월 1기 도전자를 모집한다. 산악인들 사이에 한국의 3대 악산으로 꼽히는 월악산 영봉, 치악산 비로봉, 설악산 대청봉 공룡능선에 오르는 2박3일 여행이다. 2021년 '코리아 쓰리픽스 챌린지'에 이은 승우여행사의 두 번째 챌린지 여행 상품이다.

3일간 하루 하나씩 산 정상에 오르는 일정이다. 첫날 서울서 출발해 월악산 영봉을 오르고, 둘째 날 치악산 비로봉, 셋째 날 설악산 대청봉을 완봉한 후 서울로 돌아온다. 매일 6시간에서 14시간의 산행을 진행하며 트레킹 전문 가이드가 동행한다. 여행은 5월 16일과 8월 1일 출발, 단 2회만 진행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31일 (금) 음력: 윤2월 1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일처리에 있어서도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띠생과 대화하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이성문제, 탈선도 조심하라.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오늘은 쥐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청색 길방: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의 날씨 31일(금)

서울	인천	춘천
0/0	0/0	0/0
7 / 23	6 / 18	2 / 24
강릉	**대전**	**전주**
0/0	0/0	0/0
13 / 21	5 / 25	7 / 25
광주	**대구**	**부산**
0/0	0/0	10/0
9 / 26	10 / 25	13 / 22
창원	**제주**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10/0	30/0	날씨 / 최저 최고기온℃
10 / 24	12 / 20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4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